

설교자의 설교철학과 설교

- 김윤하 목사의 설교철학을 중심으로

A Philosophy of Preacher and Preaching
- Centering around the Preaching Philosophy of
Rev. Kim Yoon-Ha -

이 환 봉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들어가는 말 | 107

김 목사의 설교철학 | 108

1. “설교의 성경성” | 109

2. “설교의 영감성” | 112

3. “설교의 복음성” | 113

4. “설교의 대중성” | 115

5. “설교의 논리성” | 118

6. “설교의 적용성” | 119

7. “설교의 균형성” / 8. “설교의 현실성” | 122

9. “설교의 경이성” | 124

10. “설교의 준비성” | 125

나가는 말 | 129



설교자의 설교철학과 설교 - 김윤하 목사의 설교철학을 중심으로

설교자의 설교철학은 설교 준비, 설교 작성, 설교 내용, 설교 자세 등에 깊은 영향을 준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룬 한 설교자의 설교철학에 나타난 설교의 기본원리들을 설교학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설교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를 위한 소중한 교훈을 얻고자한다. 김 목사의 10가지 설교원리들은 개혁주의 설교신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항상 성경 본문에 충실하여 그 정확한 의미(“성경성”)를 들어내고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의 의미를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하여 적용(“적용성”)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영감성”) 역설하지만, 동시에 인간 설교자의 철저한 준비와 연습도 중요하다고(“준비성”) 강조하고 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의 복음(“복음성”)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시대적 상황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믿음과 지혜(“균형성”과 “현실성”)도 제시하고 있다.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고 논증하는 논리적 전개 방식을 따라 설득력 있는 전달(“논리성”)에 힘쓰지만, 동시에 사실적 예화와 스토리 개발을 통해 가능한 단순하고 용이하게 전달(“대중성”)되도록 노력한다. 설교를 위해 목숨을 거는 치열한 준비 가운데서도 항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와 경이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은혜(“경이성”)를 갈구하는 설교자의 모습을 발견한다.

A Philosophy of Preacher and Preaching

주요어

설교, 설교자, 설교철학, 설교원리, 설교학, 목회자, 목회

Abstract

A Philosophy of Preacher and Preaching
- Centering around the Preaching Philosophy of Rev.
Kim Yoon-Ha -

Prof. Dr. Hwan Bong Lee

A philosophy of preacher influences deeply in the preparation, writing, contents, and attitudes for his preaching. By elucidating the basic principles of sermons which are mentioned in a preacher's philosophy for his sermons, we could get a precious lesson for the Korean Church in the crisis of preaching. Rev. Kim's 10 principles for his sermon not only have all the important elements of Reformed homiletic theology but also gain the consonants and balances for each other.

He presents exactly the text-centered meaning of the Bible while also apply it to the concrete life of church members. He is very emphatic about the prayer to ask the guidance and help of the Holy Spirit while also emphasizes the careful preparation and exercises of human preacher. He always makes the Christ-centered Gospel of salvation as the kernel of his sermon while also indicates a prophetic faith and wisdom which discerns

rightly and copes realistically with the context of the times. He tries to communicate the meaning of a biblical text so persuasively by the logical process to explain and articulate it while also tries to communicate simply and easily by using some factual illustrations and story. We can find out a preacher's attitude which yearns for the teaching and helping grace of the Holy Spirit before the mystery and wonder of Divine revelation, while he tries to do the best to prepare his sermons at risk of his life.

Keywords | Preaching, Sermon, Preacher, Homiletics,
Principles of Sermon, Philosophy of
Preaching, Pastor

들어가는 말

참빛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신학대학원 목회학 수업에서 교회성장의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참빛교회의 성장 사례는 어떤 놀라운 부흥의 전략이나 요란한 성장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김 목사의 충성스러운 설교사역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생각한다. 김 목사는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가장 좋은 양식으로 먹이기 위해 평소에 목자의 심정과 사랑으로 한편 한편의 설교를 전 인격과 혼신의 힘을 다해 빚어내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그 설교들이 성도들에게 마음의 깊은 감동과 삶의 놀라운 변화를 안겨준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원천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충성을 다하였던 신실한 종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그러한 김 목사의 설교를 살피고 논한다는 것은 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실 김 목사의 설교 사역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난감하였다. 왜냐하면, 한 목회자의 설교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상 그 모든 목회와 설교의 현장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의 김 목사의 설교에 대한 논의는 시공간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설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배경으로 행해지는 역동적인 것이기에 바로 그 예배 현장의 고유한 정황과 분위기 즉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서 듣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설교문만을 분석하는 것은 마치 소리 없는 자막으로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더욱이 김 목사는 아직 자신의 설교를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한 적도 없고 다만 매주 주보에 실린 설교 요약만을 접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회 홈페이지에 많은 분량의 설교 동영상을 접할 수 있었고, 이전에 참빛교회 예배 현장에서 그의 설교를 몇 차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한 설교는 단순히 성경 본문을 주해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의 전 인격과 삶이 투영된 궤적과도 같다. 따라서 한 설교에 대한 바른 분석과 이해는 그 설교자의 신앙과 삶, 인격과 성품, 신학과 목회, 그리고 설교철학 등이 요구된다. 친구로서의 오랜 사귄과 대화 속에서 김 목사의 삶과 인격, 신학과 목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의 목회 사역에 있어 그 무엇보다 설교는 항상 “최우선 순위”에 있었으며, 가정에서의 그의 일상의 에너지와 시간의 대부분이 설교 준비에 사용되어진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니 그가 말한 대로 “설교에 목숨을 거는 것”이 자신의 목회철학이다. 이러한 김 목사의 목회와 설교사역의 삶 속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내가 지향하는 설교철학”은 김 목사의 모든 설교에 항상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목사의 설교철학

“철학”이란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필연성에 근거한 학문적인 지식 체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철학은 매일 우리가 사는 집과도 같다. 누구에게나 집은 있듯이 누구에게나 철학이 있다. 매일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에서 만사를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결론을 내린다. 김 목사가 말하는 “설교철학”이란 설교자 자신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일상의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신의 설교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의식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향하는 설교철학”이라는 글의 초두에 “평생에 써왔던 설교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설교철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간결하고 소박하게 서술한 설교철학이 비록 학문적인 설교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아도 개혁주의 설교학의 중요한 원리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러한 김 목사의 설교철학은 그의 설교 준비, 설교 작성, 설교 내용, 설교 자세 등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김 목사의 설교철학에 제시되어 있는 열 가지 설교의 원리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의 설교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1. “설교의 성경성”

김 목사는 그의 설교철학에서 “설교의 성경성”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본문에 언제나 충실하고 성경적인 교리에 부합한가를 깊이 살피는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 목사가 말하는 이러한 “설교의 성경성”은 설교의 성경 본문에 대한 충실성을 말하며, 이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설교에 나타나는 대표적 특성이기도 하다.

칼빈은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설교할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충실하게 들어내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칼빈만큼 성경에 그토록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의존하였던 설교자는 찾아보기 어렵다.¹⁾ 설교자는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항상 충실하게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성경은 설교자의 사역에 권위와 내용과 능력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 J. I. Packer, “Calvin in a Servant of the Word,” *Papers read at the 1964 Westminster Conference*, p.43: “어떤 신학자와 설교자도 칼빈보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성경에 의존하진 않았다.” cf. John Calvin, *Inst.*, 4. 8. 8.

따라서 성경 본문과 무관하거나 성경 본문에서 멀어진 설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서의 설교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교회의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말을 전하고 있다. 설교를 자신의 세계관과 인생관,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뜻을 관철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 이는 설교의 타락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적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이다.

참된 설교자는 강단에 설 때마다 준비한 설교의 내용이 성경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그 성경의 정확한 의미에 부합한지를 부단히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설교자 개인의 생각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를 반문해 보아야 한다. 그리할 때 비로소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설교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²⁾

김 목사의 설교는 성경 본문 자체에서 설교의 주제와 내용이 정해지는 강해설교 및 본문설교의 형태를 견지하고 있다. 항상 성경 본문에서 설교의 주제와 제목이 결정되고, 그 주제를 풀어내는 대지(大旨)들도 성경 본문의 순서를 따라 각 성경 구절을 강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³⁾ 때 따라 각 절기와 행사 및 교리와 관련한 주제설교에서도 일정한 성경 본문 주제에 근거한 의미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실제적 교훈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문설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2) Cf. John Calvin, *Comm. on Cor. 1:18 in Second Corinthians*, p.20.

3) 전통적으로 설교를 그 형식에 따라 주제설교(Topical Preaching), 본문설교(Textual Preaching), 그리고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설교를 형식적 구성만 보고 분류하기 보다는 설교의 내용적 구성을 보고 구분하는 것이 좋다. 본문설교가 일반적으로 성경 몇 구절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형식을 따르나 내용적으로도 본문에 충실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면, 사실상 본문설교는 강해설교와 다를 바 없다. Cf.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Grand Rapids: Eerdmans, 1988), p.123.

김 목사는 성경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 설교할 성경 본문에 대한 정확한 주해적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교리에 부합한가”를 깊이 살피고, 동시에 “전통적인 신학과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개별 성경 구절에 대한 올바른 주해와 정확한 의미의 이해는 성경 전체에 들어난 교리적 또는 신학적 관점에서 살피는 작업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성경 주해야 말로 복음 진리의 전체 성과 통일성을 견지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설교의 완성과 충만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설교에서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회가 반쪽 진리를 믿거나 전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다.⁵⁾

이처럼 교리와 신학과 연결하여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하기 위한 주해의 노력은 개혁주의 전통의 성경해석 방법과 일치한다. 개혁자들도 “문법적-역사적 방법”(grammatico-historical method)을 따라 성경 개별 본문의 문헌적 또는 자연적 의미를 확정하기 위한 기본적 주해의 작업을 먼저 시행하고, 동시에 그 주해의 결과들을 “신학적 방법”(theological method)을 따라 성경 전체의 교리적 또는 신학적 관점과 연결시킴으로써 그 본문의 보다 정확한 의미를 확정하려고 했다. 이는 성경 본문에 대한 기존의 문법적-역사적 해석방법의 약점과 한계를 해결해주는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주요한 원리(*analogia fidei*)이기도 하다.⁶⁾

4) 예를 들면, 2011년 11월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연속적인 설교들은 주제(제목)설교처럼 보이나 실상 본문들에 충실한 설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교리적 주제설교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등에 대한 설교에서도 본문 주해에 근거한 본문설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Cf. 이환봉, “교의학과 설교의 관계,” 『고신신학』, 제11호 (부산: 고신신학회, 2012), pp.343-344.

6) Lee Hwan Bong, *Historical Criticism of the Bible : A Critical Examination of Its Validity as a Recognized Principle for Biblical Hermeneutics*, PU for CHE, 1992, pp174-176.

이러한 김 목사의 성경 본문 주해의 과정과 방법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원리에 충실한 것이며 그의 설교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만들어 주는 근거가 되어 있다.

2. “설교의 영감성”

김 목사는 그의 설교철학에서 “설교의 영감성”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나의 설교도 역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자신의 설교에서도 전하는 그 말씀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설교자의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김 목사가 여기서 말하는 “영감성”은 성경의 영감성이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사도의 영감성을 말한 것은 아니다. 김 목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려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설교에서 성경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한다.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능(히4:12)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포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전달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다. 성령님의 감화와 조명(照明) 그리고 확신케 하심 없이는 설교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설교의 효과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다.

칼빈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이 내면적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길을 마련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할 수 없다”⁷⁾ 그리고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을 비추시어,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신다”⁸⁾고 말하였다. 칼빈은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실 때에 비로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고 머물러 있어 각인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목사는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근거하여 설교에 있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설교의 준비는 하루도 거루지 않고…기도로 설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본문이 정해지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성령님의 감동을 구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얻기 위해 “설교는 기도로 만들어 져야 합니다”라고 단언한다.

3. “설교의 복음성”

김 목사는 그의 설교철학에서 “설교의 복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반드시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이루는 복음적인 설교를 지향한다.

시드니 크레이다너스(S. Greidanus)는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 즉 성경 본문에 있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7) John Calvin, *Inst.*, 3. 2. 34.

8) John Calvin, *Inst.*, 3. 24. 8. cf. R.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p.82.

설교를 하기 위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제안하였다.⁹⁾ 그는 성경 기록의 근본 목적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이라고 주장하였다. 성경의 목적과 설교의 목적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성경적인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이어야 하는가? 성경적 설교는 성경의 목적을 충실하게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 성경 기록의 목적을 말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5, 참고 요20:30-31)고 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알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한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설교의 중심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하고,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고전2:2)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뿐 아니라 모든 설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의 핵심 주제도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구원의 역사)이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경적 설교는 당연히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설교하는 것이기에 흔히 “구속사적 설교”로도 지칭되기도 한다. 이처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적 설교는 설교의 한 방법이라기 보다는 성경 자체가 요구하는 설교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9) Sidney Greidanus, *op. cit.*, pp.113-119.

그러나 오늘날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주장과는 달리 설교자 자신의 뜻과 주장을 앞세우는 소위 “인간 중심적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 설교이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주장을 바르게 들어내고 충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모든 설교자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 것처럼 “설교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김 목사는 자신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성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김 목사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주된 핵심 주제가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장 중심적인 사상으로 농축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설교 중심과 결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 안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치유적인 능력의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다.

4. “설교의 대중성”

김 목사는 그의 설교철학에서 “설교의 대중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는 누구에게나 쉽게 들려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신학자와 목회자의 설교를 대비하면서 목양적 설교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설교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교회의 설교는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달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설교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을 매우 논리적이고 난해한 개념들을 나열하는 설교자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상 그는 설교에서 “정제되지 않은 단순함”을 가진 용어들과 대화체적 설명의 방식을 즐겨 사용하였다.¹⁰⁾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10) John Calvin, *Inst.*, 1. 8. 1.: “성경은 꾸미지 않고 거의 조잡할 정도의 단순성으로도 어느 누구의 웅변보다 더 큰 감화를 주어 성경에 대한 존경을 갖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드러내고 전달하기 위해서 칼빈은 그 어떤 수사학적 기교나 화려한 언어구사와 같은 것에도 의존하지 않았고, 대신에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능한 단순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다.

칼빈의 설교의 구성과 형식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그의 성경 주해의 원리도 “단순함과 용이함”(simplicitas et facilitas)이었다. 그러한 주해의 대상인 성경 그 자체의 특성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였다. 주해의 결과에 기초한 설교 역시 단순하고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의 영감을 설명하면서도 “적응”(accommodation)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마치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눈높이 대화”(baby talking)를 하듯이 자신을 인간의 한계에 맞추어 조정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의 개념은 칼빈의 설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칼빈 자신도 스스로를 일상생활 속에서의 회중의 능력과 수준에 적응시킴으로 때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농부들의 정제되지 않은 단순한 생활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¹¹⁾ 물론 그러한 단순한 설명 이면에도 언제나 심원하고도 총괄적인 하나님의 지식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김 목사는 설교의 도입부에서 항상 그날 설교할 내용과 관련된 어떤 간략한 스토리와 사실적인 예화를 대화하듯이 편한 어조로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자연스럽게 설교 주제에 대한 관심과 경청으로 이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 속의 경험과 느낌, 만남과 대화, 비유와 어록, 질문과 제안, 뉴스와 통계 등이 자연스럽게 엮여져 나온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평소에 성도들과 함께

성경의 강력한 진리의 힘에 무슨 수사학적인 기교가 필요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 외에 무슨 단언이 있을 수 있겠는가?” cf.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Kent: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92), p.41.

11) L. F. Schulze, “Calvin on Preaching“, 『칼빈과 교회』(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2007), pp.246-247.

마음으로 대화하며 늘 자상하게 양들의 주변을 살피고 돌보는 목자의 친근함과 편안함이 배어 나온다.

김 목사의 설교 전달은 간결하고 명료하다. 주로 단문을 구사하되 계속되는 단문들이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생각을 발전시켜 간다. 항상 친필로 원고를 준비하고 설교 현장에서도 원고에 충실한 설교를 견지하기에 본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문어체적인 분위기를 느끼지만 대화하듯이 차근차근 말하는 분위기는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발음은 항상 분명하고 때로는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하게 읽듯이 말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한 모습과 어조를 유지하되,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는 약간 힘이 들어간 음성으로 선지자적인 간절함과 열정이 담겨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김 목사의 설교 스타일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설교를 경청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설교 내용까지도 용이하게 전달되게 하는 효과를 더하여 주고 있다.

김 목사는 설교 준비에서 성경 본문 주해에 많은 시간을 드려 “주석이나 참고문헌이나 다른 분의 설교집”도 읽으면서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정작 설교 시간에는 본문에 대한 그러한 복잡한 주해 과정을 나열하거나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곧장 그 의미를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하여 더욱 생동적이고 단순하게 풀이해서 전달함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려 한다.¹²⁾ 이러한 김 목사의 노력은 설교가 누구에게나 잘 들려지도록 가능한 단순하고 용이하게 전달하려는 설교의 대중성을 견지하기 위한 것이다.

12) Cf. Richard Baxter, *The Reformed Pastor*, 최지남 역, 『참 목사상』(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p.128. 사실 리처드 백스터가 말한 바대로 “만약 다른 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표징”일 수 있다.

5. “설교의 논리성”

김 목사는 그의 설교철학에서 “설교의 논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나 마음속에 잘 정리되어 담기”도록 하기 위해 “설교의 논리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 설교의 “대지를 2-3가지로 나누워서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설교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전개하여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전달과 수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교의 논리적 전개 방식은 연역적 방식과 귀납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김 목사가 주로 사용한다는 3대지 설교(a three-point sermon)는 주로 연역적 방식에 의존하여 초두에 핵심과 결론을 미리 전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하며 설득하는 전통적 설교 방식으로 한국교회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귀납적 방식은 초두에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면서 마침내 청중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위에서 말한 설교 전개의 두 가지 논리적 방식은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역적 방식은 의도하고 있는 분명한 핵심적 진리를 전달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교훈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지닌다. 귀납적 방식은 함께 흥미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기에 자연스러운 설득력을 가지며 묘사적이고 직설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김 목사의 설교는 대부분 3대지로 나누어져 있다. 설교의 중심 주제를 형성할 수 있는 단위로 성경 본문을 선정하고, 먼저 서두에서 주제와 관련된 특수한 실례에 대한 문제 제기과 더불어 주제의 핵심을 미리 간략히 밝힌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주제를 지지하는 대지들을 절별로 묶어 주해하고 설명하며 논증하고 설득하여 적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김 목사의 설교 전개 방식을 구태여 분류하자면 귀납적-연역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¹³⁾

그러나 그의 모든 설교가 이러한 방식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설교들에서는 본문에 대한 핵심적 교훈을 바로 밝힌 다음에 절별 단위로 본문을 설명하고 논증 또는 설득하는 연역적 방식 방식만을 취하기도 한다. 사실상 모든 설교가 연역적 방식과 귀납적 방식으로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청중의 경향과 상태, 그리고 정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논리적 전개 방식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설득력을 높여 갈 수 있다고 본다.

6. “설교의 적용성”

김 목사는 그의 설교철학에서 “설교의 적용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구체적 삶에로의 실제적 적용이 없는 설교는 그저 본문의 의미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 전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적용 없는 설교는 성경 주석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영혼의 실제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설교의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전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삶의 정황 가운데 구체화 시키는 적용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¹⁴⁾

칼빈은 설교에서 항상 본문(text)과 상황(context)을 함께 지향하였다. 다시 말하면, 칼빈의 설교 사역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exposition)과 적용(application)이 함께 하였다. 이는 칼빈이 항상 본문 주해에 대한 관심만큼 청중 이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좋은 설교자는 항상 교회의 현재 상태와 필요를 고려해야 하고 자신의 설교

13) Cf. Sidney Greidanus, *op.cit.*, p.143.

14) Cf. F.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pp.14-15.

원고를 특수 상황에 비추어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¹⁵⁾ 이처럼 설교자는 설교할 본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할 우선적인 의무와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 잘 적용해야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교 말씀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 설교자는 항상 목자의 심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처한 시대적 정황과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밝히 읽어내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일하고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이지만 청중의 상태와 모습에 따라 적실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교자로서의 청중에 대한 민감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요한복음 3장)와 사마리아 여인(요한복음 4장)에게 각기 다르게 접근하고 대화하시는 모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실 청중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설교를 위한 주제 선정과 목적 설정, 적절한 준비와 전달의 방법, 그리고 설교를 위한 주해와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 목사는 자신의 설교철학에서 자신의 고유한 설교 스타일을 만들고 그리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말씀의 적용을 위해 “교회 주의의 교육환경이나 문화수준이나 생활수준 등, 상황성을 잘 감지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말씀으로 적용해 주어야만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중이 살고 있는 시대적 정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베스트셀러 책들이나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들을 깊이 있게 접근합니다. 여행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일반은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건축 등에 대한 공부도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15)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1 (Grand Rapids: Eerdmans, 19499, xxxv-xlix; *Comm.*, on Jude 1:4.

실제로 김 목사의 설교에는 성도들의 삶의 정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성도들의 영적 경주와 전투, 그리고 갈등과 고뇌에 함께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격려하고 권고하며 호소하는 다독거림과 간절함이 배어 있다. 그리고 그의 설교 주제의 선정과 설교 내용의 전개에서 성도들이 현재 처해있는 삶의 정황이 제기하는 문제와 질문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 목사는 자신의 설교철학에서 설교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스토리”(story)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⁶⁾ “가능한 나의 스토리를 한 가지는 찾아서 사용하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특히 선교사님이나 나와 다른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스토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김 목사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스토리(story)로 만들어 성도들의 스토리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시한 모범적인 신앙인들과의 소중한 만남에서 그들의 삶과 생각을 스토리로 만들어 성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분들의 삶을 직접 바라보고 느끼도록 만

16)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story)는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고 예증하기 위한 단순한 예화가 아니고, 시공간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인물과 사건들을 주제(의미)가 있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 발전시키고 재구성한 설화(tale)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그 스토리는 진리를 찾고 느끼며 공감하게 하는 설교 자체라 할 수 있다. 성경 속에서 사용된 이러한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들려주신 여러 가지 비유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cf. W. B. Robinson, 이연길역, 『이야기 설교를 향한 여행』(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8), pp.13ff.; 이연길, 『이야기 설교학』(서울: 쿰란출판사, 2003), p.45. 물론 김 목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 기식 설교”(narrative preaching)의 원리와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설교의 효율적인 전달과 적용을 위해 그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있다.

든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의 스토리를 오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한다.

사실 청중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아 있어 감동을 주는 것은 스토리 형식으로 주어지는 이야기이다. 설교에서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주입적인 명령형의 교훈과 설명을 계속하는 것은 생동적인 진리를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이완시켜 화석화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때때로 일상적인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이야기는 생동적인 힘이 있어 공동체를 쉽게 하나로 묶어 공감의 세계로 이끌 뿐 아니라 삶의 변화에도 유도한다.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삶을 이야기로 들려줌으로써 청중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삶을 분명히 바라보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느끼도록 하셨다. 그 구체적인 예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10:25-37)와 탕자의 비유(눅15:11-32)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 목사의 설교의 서두와 각 대지의 적용 부분에서 이러한 “스토리”가 종종 등장한다. 설교하는 본문의 교훈과 관련된 하나의 간단한 줄거리를 가진 스토리를 만들어 들려줌으로써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느끼고 공감하며 받아들이게 한다.

7. “설교의 균형성” / 8. “설교의 현실성”

김 목사는 그의 설교철학에서 “설교의 균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주제 선정의 균형성을 다루고, 연이어 “설교의 현실성”에서는 현실 관련성(relevance)을 가진 주제(문제)들에 대한 시대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 가지 원리들이 각기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나 상호 연관성 때문에 함께 다루고자 한다.

김 목사는 먼저 “설교의 균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설교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중심에서 시작하여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모든 면에 필요한 기준입니다.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모든 부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균형을 그의 설교철학의 서두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균형 있는 설교를 중시하는데, 영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의 균형,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균형, 예배와 선교의 두 가지 교회 존재 목적의 성취를 위한 균형, 교회와 가정과 사회생활의 균형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특별한 주제를 놓고 다루게 되는데 병자들, 사업하는 자들, 전도, 선교입니다.”

김 목사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설교의 현실성”을 논하면서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든 해답이 말씀에 있습니다”라고 피력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김 목사가 설교의 우선적인 주제를 무엇보다도 “영적인 중심에서” 곧 개인의 영혼구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설교가 가정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영혼의 변화를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사회의 변혁도 그 구성원인 개인의 변화 즉 개인 영혼구원과 삶의 변화가 그 시작과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개혁주의는 영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교회는 가정과 사회의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김 목사는 “설교의 현실성”에서도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문제에도 대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준비가 말씀에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해답을 설교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김 목사의 설교 주제의 대부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 구원, 회복, 종말, 전도, 충성 등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영혼구원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김 목사는 당시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잊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연초의 계획된 설교 주제를 변경하여 행한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2012년 1월 9일자 설교)라는 제목의 설교는 당시의 동성애 문제, 교회 안의 폭력 사건, 정치적 극한 대립, 연평도 폭격 사건, 북한의 핵 문제 등으로 혼란한 사회적 현상들에 직면하여 “시대를 분별하면서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과 지혜”를 제공하기 위한 설교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교훈과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팔복 시리즈 설교”(10 편)들에서도 그 모든 윤리적 주제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어 한편의 설교에서도 “영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즉 복음과 윤리의 균형성이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9. “설교의 경이성”

김 목사는 그의 설교철학에서 “설교의 경이성”은 우리가 영원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의 경이와 풍요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금광과 같아서 파면 팔수록 더 놀라운 보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교회의 설교는 것처럼 금광과도 같은 성경을 “더 깊이 파는 설교”로서 매주일 마다 말씀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고 말씀하는 동시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욥11:7)라고 말

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 그 영생의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 전부를 완해(完解)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해할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에 대해 계시하시지 아니한 신비가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것에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깊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항상 경이와 경외의 심원한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¹⁷⁾

김 목사가 말한 대로 “재탕 삼탕하는 설교”가 아니라 “더 깊이 파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안내자와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명제적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더 풍부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성경 말씀의 풍요로부터 파내어 올린 신비로운 경이를 맛보게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김 목사는 성령께서 성경 본문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성경계시의 경이로운 부요를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는 매주일의 설교사역을 항상 꿈꾸고 있다.

10. “설교의 준비성”

김 목사는 그의 설교철학에서 “설교의 준비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설교자는 음성과 발음의 정확성, 시간의

17) 이환봉, 『현대인을 위한 개혁신앙과 윤리: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부산: 글마당, 1999), p.55.

조정, 전달의 테크닉 등에 대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칼빈은 설교자로서 설교라는 최우선적인 과업 앞에서 다른 목회적 노력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자신이 부름 받은 사명의 본질적 요소가 설교에 있다고 믿었고, 목회사역의 주요 업무는 성례와 행정과 치리가 아니라 항상 설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¹⁸⁾ 특히 칼빈은 잘 준비된 설교를 강조하였으며 준비 없이 강단에 오르는 것을 단호히 책망하였다. 신명기 49번째 설교에서 “단 위에 올라서서 감히 책을 참고하지 않은 채 허튼 상상을 짜내며…하나님은 내게 말할 충분한 것을 주실 거야! 이는 스스로 자만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은 나의 그 뻔뻔스러움을 이용하여 나를 혼란케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¹⁹⁾

김 목사도 설교를 자신의 목회사역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설교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목회현장에서 나의 양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 순위에 설교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곧 설교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을 “설교에 목숨을 거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은 설교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자신도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예배에서의 설교의 영예로운 자리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김 목사의 일상생활의 모든 접촉과 만남도 항상 설교와 연관되어지고 자신의 전인격을 다 쏟아 바쳐 설교 준비에 집중

18) Cf. A. G. P. van der Walt, “John Calvin and the Reformation of Preaching,” *Our Reformational Tradition* (Potchefstroom: PU for CHE, 1984), p.194.

19) Cf. B. M. Levy, *Preaching in the First Half Century of New England History* (Hartford, Connecticut: The American Society of Church History, 1945), p.82.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던 토마스 셰퍼드(Thomas Shepard)는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세상일에 문혀 살다가 토요일 오후에서야 서재로 가서 설교를 준비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 때에는 너무 늦어서 기도하거나 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나 마음을 조정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한다고 말한다. “나의 일상생활이 항상 설교와 연관되어 지고 사물과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설교에 적용할까를 생각합니다.…나의 설교 준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몸으로 생각으로 기도로 설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자신의 설교 준비의 실제적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주일 낮 설교는 한 달 전에 주제가 정해지는데, 본문이 정해지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성령님의 감동을 구합니다. 묵상하면서 주석이나 참고 문헌이나 다른 분의 설교집도 읽으면서 제목과 대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서론에 대한 참고 자료를 신중하게 찾아서 정하고 사실적인 예화를 자료에서 뽑아냅니다.…원고는 친필로 쓰면서 나의 온 몸과 마음을 지중하여 설교 원고를 완성 시킵니다. 원고가 완성되면 여러 번 읽는 과정을 통에서 숙지하고 암기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정도 암기하게 되면 책상에 앉아서 전부를 묵상하면서 내게 먼저 설교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설교 준비를 위한 이러한 김 목사의 성실한 노력 안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김 목사의 설교 준비의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설교 준비를 위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성령님의 감동을 구합니다”는 사실과 준비된 설교 원고를 “묵상하면서 내게 먼저 설교하고 은혜를 받습니다”라는 사실이다.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사실 성경 본문을 선정하고 읽으며 주해하는 과정에서 부터 시작하여 설교 준비의 전 과정에 있어 계속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의지해야 한다. 칼빈이 디모데전서 25번째 설교(딤후3:9)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러 오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에 우리가 듣는 것이나 읽는 것을 우리들이 가진 재치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속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을 바르게 읽고 주해하는 일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말과 전도가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고전2:4)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교의 효과와 능력은 설교자의 영역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며, 선포된 말씀에 대한 순종도 성령의 은혜의 역사이지 결코 자연적인 작업의 결과가 아니다.²⁰⁾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 준비의 전 과정에서 항상 성령님의 은혜와 기쁨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김 목사가 완성된 설교를 먼저 자신에게 설교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의 설교 준비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먼저 스스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칼빈도 “설교자가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스스로 감동하지도 않고 설득 당하지도 않은 채로 천사처럼 말하기 위해 강단으로 올라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²¹⁾ 그리고 강단에서 칼빈 자신도 그 설교의 말씀을 청중해야할 대상임을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강단에 오를 때,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지로다!”²²⁾

존 오웬(John Owen)도 말하기를 “자신의 영혼에 설교한 설교자라야 다른 사람에게 훌륭하게 설교하게 된다. 만일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능력으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²³⁾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의 능력에 먼저 설복 당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새로움과 뜨거움을 덧입을 수 있어야 한다.

20) T. H. L. Parker, *op.cit.*, pp.48-53.

21) John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dinburg: The Banner of Truth, 1973), p.81.

22) John Calvin, *Sermons XCV*, 욥기(26:4) 설교.

23) John Owen, *The Works of John Owen*, vol.16, p.76.

나가는 말

김 목사의 설교철학에 나타난 소중한 원리들을 신학적으로 풀이하여 설명해 보았다. 열 가지로 정리된 그의 설교원리들은 개혁주의 설교신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새로운 설교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유용한 요소들도 잘 소화하여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김 목사의 설교철학이 그의 모든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예를 들어 일일이 다 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평생에 써뒀던 설교준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설교철학이기에 그 열 가지 원리들은 실제로 김 목사의 설교에서 자연스럽게 잘 반영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 목사의 설교철학에 나타난 설교의 원리들은 서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항상 성경 본문에 충실하여 그 정확한 의미(“성경성”)를 들어내고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의 의미를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하여 적용(“적용성”)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영감성”) 역설하지만, 동시에 인간 설교자의 철저한 준비와 연습도 중요하다고(“준비성”) 강조하고 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의 복음(“복음성”)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시대적 상황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믿음과 지혜(“균형성”과 “현실성”)도 제시하고 있다.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고 논증하는 논리적 전개 방식을 따라 설득력 있는 전달(“논리성”)에 힘쓰지만, 동시에 사실적 예화와 스토리 개발을 통해 가능한 단순하고 용이하게 전달(“대중성”)되도록 노력한다. 이토록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밤낮으로 몸부림치며 정말

목숨을 거는 치열한 준비 가운데서도 항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와 경이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은혜(“경이성”)를 갈구하는 설교자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학적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완벽한 성경주해와 완전무결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 할 수 있는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펔존의 경우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 목회자의 설교를 적절한 평가 없이 무조건 수용하거나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의 다양성을 간과해버리고 각 설교자에게 주신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무시하는 잘못된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김 목사의 설교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남달리 분명한 설교철학을 가지고서 항상 성경적 설교의 기본적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김 목사의 설교가 비교적 짧은 교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을 가능케 하였다고 믿는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설교의 효과적인 방법과 기교들은 너무도 많고 다양하며 또한 시대를 따라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원리이다. 오늘 진정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자의 성숙한 신앙적 인격과 성경적인 조화와 균형을 가진 설교의 기본적 원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 목사의 설교철학은 설교의 위기를 말하는 한국교회에 하나의 소중한 교훈과 이정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Baxter, Richard., *The Reformed Pastor*, 최지남 역, 「참 목자상」(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 T. McNeill, trans. F.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Second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49)
-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1 (Grand Rapids: Eerdmans, 1949)
- Calvin, Joh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dinburg: The Banner of Truth, 1973)
- Calvin, John., *Sermons from the Job*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 Craddock, F.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 Greidanus, Sidney.,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Grand Rapids: Eerdmans, 1988),
- Levy, B. M., *Preaching in the First Half Century of New England History* (Hartford, Connecticut: The American Society of Church History, 1945)
- Lee Hwan Bong, *Historical Criticism of the Bible : A Critical Examination of Its Validity as a Recognized Principle for Biblical Hermeneutics*, PU for CHE, 1992
- Owen, John., *The Works of John Owen* (London: The Banner of Truth, 1965), vol.16
- Parker, T. H. L.,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Kent: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92)

- Robbinson, W. B., 이연길 역, 「이야기 설교를 향한 여행」(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8)
- Wallace, R. S.,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 Packer, J. I., "Calvin in a Servant of the Word, " *Papers read at the 1964 Westminster Conference.*
- Schulze, L. F., "Calvin on Preaching", 「칼빈과 교회」(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2007)
- van der Walt, A. G. P., "John Calvin and the Reformation of Preaching, " *Our Reformational Tradition* (Potchefstroom: PU for CHE, 1984)
- 이연길, 「이야기 설교학」(서울: 쿰란출판사, 2003)
- 이환봉, 「현대인을 위한 개혁신앙과 윤리: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부산: 글마당, 1999)
- 이환봉, "교의학과 설교의 관계, " 「고신신학」, 제11호 (부산: 고신신학회, 2012)